

##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

심현섭\*

1. 머리말
2. 진화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국가전략
3.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
4.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시작
5. 맺음말

### 1. 머리말

중국 국방백서(中国的军事战略)는 “중국의 꿈은 강국몽(强国梦)이다. 군에 있어서는 강군몽(强军梦)이며 강대한 군대가 없다면 공고한 국방도 있을 수 없으며, 강국몽 역시 실현할 수 없을

---

\* 육군 소령, 중국 남경육군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생  
주요논저 : 한중군사외교의 동인과 제약사항

것<sup>1)</sup>”이라며 강력한 힘의 추구를 예고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적극적인 국정방향에 따라 중국의 군사변혁은 중국몽, 강군몽 실현의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육군지도기구, 전략지원부대 창설과 로켓군 개편을 시작으로 군종(軍種)체계를 정비하고 5대 전구(戰區)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어서, 연합합동작전 지휘체제를 적용한 전구 연합훈련과 다국적 연합훈련 시행 등 강군몽 구상을 토대로 중국특색 군사변혁<sup>2)</sup>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며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이미 폭발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중국의 경험을 공유한 바,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더군다나,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잠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군몽’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인가? (Feldman, 2013) 미국과의 적대적 경쟁관계에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열 것인가? (Mearsheimer, 2013)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군사적 팽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들 의문에 해답을 구하는 과정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이해하는 데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부분

1)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中国的军事战略》(2015), 第2章 军队使命和战略任务.

2)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이라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혁신(革新)’과 ‘변혁(变革)’을 혼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변혁’을 주로 사용함.

한계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군사력 증강, 국방비 총액, 무기체계의 발전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군사력 증강 그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중패권경쟁과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요 특징을 공유하는데,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두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만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그 자체로서 위협이며, 단지 우리가 이미 직면한 충분히 현실적 위협인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잠재적 위협인지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신냉전과 다름없는 적대적 집단 간의 불확실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역내 다자 및 양자관계, 영토 및 역사문제, 북한문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등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요구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중국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이분법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핵심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sup>3)</sup>으로 요약되는데, 지도체제 개편, 연합합동 작전체계 수립, 전구 조정, 군종 및 병종체제 정립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군사력 증강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양적요소의 분석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비대한 무력의 단순한 사용

3) ‘중앙군사위원회가 총괄하고 전구가 작전을 주도하며, 군종별로 건설한다.’, 胡光正, “伟大改革的精髓—论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国防, 第3期(2016), p.4.

이 아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졌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그에 대한 분석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만으로는 중국이 의도하는 바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최근 변화가 감지되는 그들의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변혁의 경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때문에, 중국의 국가 및 군사전략,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구조적 변화를 상호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이러한 개혁은 일당독재의 특수한 정치체제를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계획되고 추진될 수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sup>4)</sup>

본문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데에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국가 및 군사전략과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여 군사적 부상의 함의를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공되는 문서와 중국 국가핵심논문으로 지정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중국이 공포하는 법령과 개혁방안, 제도 개선안들에 주목하여 군사전략, 군사변혁과의 연계성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할애하였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장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그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 내도록 고심했다.

4)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변혁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세계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단지 오래 전부터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본론의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할 것이다.

## 2. 진화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국가전략

중국의 군사변혁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력 확장에 대한 분석이 의미하는 바와는 대별되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국가 혹은 군사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라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가. 시진핑 시기의 ‘4개전면’ 전략구상(‘四个全面’ 战略布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과는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면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당독재체제라는 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보다 맹목적이고 폭발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록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중국만이 갖는 특수한 정치체제가 국가정책 추진에 일정부분 우호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sup>5)</sup> 그들이 강조하는 일종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이다.

5)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삼은 ‘마오쩌둥 사상(인민군대, 인민전쟁, 인민전쟁전략, 국방건설사상)’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덩샤오핑 이론’을 제시했다. 장쩌민은 ‘3개 대표중요사상(三个代表重要思想)’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공산당에 주입하였으며, 후진타오는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을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四个全面’ 战略布局)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4개전면’이란 시진핑 주석이 ‘12년부터 ‘14년까지 각종 회의석상에서 강조했던 4가지의 핵심 주장들로서,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진행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법과 제도를 기초로, 당의 엄중한 통치로 이루어져야 한다(全面建成小康社会, 全面深化改革, 全面依法治国, 全面从严治党).’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15년 12월, 18기 5중 전회에서 ‘4개전면’ 전략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지와 관영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시진핑 정권의 핵심사상으로 떠올랐다.

‘4개전면’ 전략구상은 중국 국가전략의 밑그림으로써, 국가 지도자에 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대중의 믿음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게 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비교적 단기적 측면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치철학을 주입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데, 국방·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미래 중국의 청사진을 제공하여 대중의 신뢰를 확보한다.<sup>6)</sup> 둘째, 장기적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3대 국가전략(국내외 경제발전전략)’과의 연계성<sup>7)</sup>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정책의 타당성을 유지한다. 셋째, 전면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sup>8)</sup>을 강조하여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의 공정성을 부여한다. 넷째, “마르크스레닌, 마오

6) 杨雷, “四个全面战略布局对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内涵的深化与发展,” *社会科学论*, 第1期(2016), p.148.

7) 周敏凯, “关于四个全面战略布局中三大国家战略内涵的理论思考,” *学习与探索*, 第10期(2015), p.40.

8) 강력한 법과 제도를 기초로 국가를 통치해야한다는 4개전면 전략구상의 하나로서, 반부패 척결의 기본바탕이 되며, 정책추진의 적법함을 강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쩌둥, 덩샤오핑 이론과 3대 대표중요사상(장쩌민), 그리고 과학 발전관(후진타오)”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향후 “2개 백년 계획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킬”<sup>9)</sup> 국가전략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역사성은 물론 심지어 현정권 이후, 미래의 지도자, 공산당에까지 강력한 신뢰를 공유한다.

한편, ‘4개전면’ 전략구상은 군사적 부상으로 중국의 꿈을 이루려는 그들의 시도를 보다 강화시켰다. ’13년 11월, 중국은 18기 3중 전회에서 ‘4개전면’ 전략구상의 세 번째 주장인 ‘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sup>10)</sup>’을 공포하고, 이와 동시에 국방 개혁을 별도의 독립된 정책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들은 매우 중요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 군부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창끝을 군사 분야에 정면으로 겨누었고, 기존 ‘4대 현대화’ 정책<sup>11)</sup>에 포함되어 있던 ‘국방 현대화’ 과제를 중국 공산당 창설 이래 최초로 독립시켰다는 점은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방개혁에 두겠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일반대중에게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통제된 인터넷과 TV 등의 대중매체를 십분 활용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사상교육 체계인 학교교육<sup>12)</sup>을 통해 민중들이 보다

9)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2016), 第1章 改革的重大意义, 指导思想和基本原则.

10) 중국개혁에 대한 시진핑 시기의 사상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에 대한 중요성, 시기, 신념, 임무, 목표, 특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贵州省公安厅出入境管理局, “全面深化改革: 历史的必然现实的需要,” 中共贵州省直属机关工作委员会(2014)를 참고.

11) 1970년대부터 추진 중인 중국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의 4개 현대화 정책을 말한다.

12) 중국은《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에 의거하여 소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정시간 군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교육내용은 공산당 사상,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교육, 국방관, 그리고 제식훈련 등이 포함된다.

도전적이고 더 강한 자기주장을 하도록 고무시켰다. ‘중국몽 실현의 최우선 과제는 강군몽’이라는 시진핑의 구상은 중국몽의 일반명제가 되고 이는 대중에게 각인되며 -어쩌면 주입된- 다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 힘을 얻는 ‘선순환’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듯, ‘4개전면’ 전략구상에서 출발한 중국특색 군사변혁은 -외부의 ‘중국 위협론’을 우려하는 시각과는 상관없이- 역사와 미래를 계승하는 현재의 거대한 국가 정치철학으로서, 국내의 어떠한 정치적 불만과 혹은 광범위한 대중의 비판으로부터도 보호되며 그들만의 특수한 정치체제에 기인하여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나. 3대 국가전략

중국은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경진지협동발전 전략(京津冀协同发展战略)’, ‘장강경제대건설 전략(长江经济带建设战略)’,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一带一路战略)’등의 국가전략을 진행하고 있다.<sup>13)</sup> 이들은 90년대부터 추진되었는데 시진핑 정권 출범 후 부분적으로 개념과 시기 등을 조정하여 ‘3대 국가전략’으로 통합하여 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군몽 실현, 중국특색 군사변혁과 관련해서는 ‘일대일로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진지협동발전 전략’과 ‘장강경제대건설 전략’은 국내적 수준의 도시화 및 경제 현대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13) 징진지협동발전·장강경제대건설 전략은 중국의 주요도시지역을 클러스터로 묶어 지역 경제통합 및 도시화를 이루려는 국내전략이며, 일대일로 전략은 국제적 수준에서 육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들 역시 ‘4대전면’ 전략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현 정권의 정책 추진동력이 된다.

그들의 군사전략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과 육로의 ‘신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은 육로(丝绸之路经济带: 실크로드경제권)와 해상로(21世纪海上丝绸之路: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이용하여 국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경제발전 구상인데, 중국이 줄곧 주장해 왔던 ‘국가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 옌쉐통의 말을 빌리자면 “국외로 확장된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중국본토에서만 영향을 발휘해서는 곤란하다.”<sup>14)</sup>



〈그림 1〉 일대일로 전략과 국외군사활동

\*출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관영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도식.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 (검색일: 2017-02-11).

14) 中华网, “阎学通: 中国应增加对外军事援助减少经济援助,” [http://military.china.com/important/11132797/20160118/21188491\\_all.html#page\\_6](http://military.china.com/important/11132797/20160118/21188491_all.html#page_6) (검색일: 2016-10-03).

때문에 국외로 확장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역외 투사력(extra-territorial projection power)<sup>15)</sup>’은 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먼저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군사외교 관계구축, 연합훈련 시행 등의 전개는 전통적으로 제3세계 외교를 중시하는 중국의 특색과 어울려 이러한 구상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국외군사 기지 구축은 이러한 최근의 사례이다.

#### 다. 군민융합발전 전략(軍民融合發展戰略)

‘경제성장이나 군사력 증강이나’의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심각한 논쟁거리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력 확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가? 중국도 그 예외일 수는 없는 데, 이러한 전략적 선택 문제에 직면하여 군사적 부상보다는 국내 경제문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sup>16)</sup>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쉽게 제지되었는데, 중국은 ‘군민융합발전 전략(軍民融合發展戰略)’에서 군사적 부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논쟁을 해결했다.<sup>17)</sup>

‘군민융합발전 전략’이란 시진핑 주석이 ’15년 3월, 제12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으로, 경제와 국방발전은 상호 협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정군기(党政军企)가 일체화되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 사상적 기원

15)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현하였다. 외부 군사력 투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국경지역 분쟁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의 해양 투사력(maritime projection power)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역외 투사력(extraterritorial projection power)으로 묘사될 수 있다.

16) 时殷弘, “中国 ‘战略透支’ 风险日增,” [http://pit.ifeng.com/a/20160922/50006043\\_0.shtml](http://pit.ifeng.com/a/20160922/50006043_0.shtml) (검색일: 2016-12-02).

17) 丁来富, “陆军部队军民融合发展对策研究,” 《国防》, 第2期(2017), p.58.

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오쩌둥은 “군민사회(军民社会)의 일체화는 국방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강대한 군대육성은 경제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인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sup>18)</sup>라고 주장했다. 중국정치에서 그의 사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당위성과 맹목적인 신뢰를 지니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는 물론, 먼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시진핑 시기의 ‘현대판 인민전쟁전략’이라 말할 수 있으며, 군사력 건설, 강한 군대의 육성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필수조건이 된다.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서 군사발전과 경제개발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논쟁거리가 아니며 일반 군중들에게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당연한 사실일 뿐이다.

’16년 7월, 군민융합발전 전략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함께 공포한 『경제와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sup>19)</sup>』을 통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년까지 제도 및 체제 완비를 목표로 중앙 및 지방정부, 군,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군민융합 발전과 연관된 정책개발, 이론연구, 제도와 법령정비, 학술회의 및 장비 박람회 개최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상 분야도 무기체계 및 장비, 해상안전, 전기, 통신, 위성, 사이버 보안, 도로교통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7년 1월에는 중앙정치국 예하 ‘중앙 군민융합발전위원회(中央军民融合发展委员会)’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국가차원의 실행의지를 다시 한

18) 张志宇, 印志均, “Integration of the Army and the People, Combination of Peace Time and War Time,” *中国军事思想精要* (北京: 军事科学出版社, 2010), p.162, 170.

19) 中共中央国务院, 中央军事委员会, 《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2016).

변 증명해 보였다.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민융합발전 전략 추진의 실행주체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일조하고 있는데<sup>20)</sup> 최근의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국방교통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달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통법(中华人民共和国国防交通法)』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싸워 이길 수 있는(能打胜仗) 군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교통건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평시 군의 수요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간경제발전을 유도한다.’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법령과 제도를 개혁하여 군의 도로 및 토지사용 우선권 부여, 재정 지원, 면세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는 군사력의 전·평시 전환 및 응전능력을 위한 작전체계 수립, 국방교통연합지휘기구 설립을 담고 있다.<sup>21)</sup>

군민융합발전 전략은 마치 군비지출의 확대를 유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연상시킨다. 차별점이 있다면, 국방부와 기업의 전략적 제휴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가 그 자체가 주체라는 점이다. 비록, 군민융합발전이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따라서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무가 된다- 하고 있지만 결국, 우선순위는 국방개혁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바이중빈(白忠斌, 중앙군위후근보장부 운송수송국장)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국방교통은 부국강병의 기초이자 ‘생명선’으로서

20) 国防期刊编辑部, “军民融合加快推进战略投送能力建设-访国家交通战备办公室主任, 中央军委后勤保障部运输投送局局长白忠斌,” 《国防》, 第10期(2016), p.70.

21)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防交通法》(2017), 第2章 国防交通规划, 第5章 国防运输.

국방수요를 우선 충족하는 조건 하에 민간경제활동에 편익을 제공한다는데 있다.”<sup>22)</sup> 미래 중국의 ‘국가 군사화’ 색채가 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군민융합발전 전략의 핵심은 경제와 군사의 지속적 성장보장,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력기반 강화다.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침체된 경제를 내부적으로는 결집을 피하고 외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민융합을 추진 중이다.

비록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는지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적어도 국가전략 수준에서 그들의 의도가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이 강조하듯 단지 정상적 강대국으로의 회귀, ‘부흥’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스스로를 새로운 패권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하며 ‘강한 중국’은 세계질서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국의 모습을 되찾고자”<sup>23)</sup>함을 주장한다.

한편, 국가전략과는 별개로, GDP대비 국방비 지출액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가장 위협이 되는 행위자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된다.<sup>24)</sup>

22) 国防期刊编辑部, “军民融合加快推进战略投送能力建设-访国家交通战备办公室主任, 中央军委后勤保障部运输投送局局长白忠斌,” 《国防》, 第10期(2016), p.72.

23)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p.546.

24)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로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16년 GDP대비 국방비 투자비율』(북한자료 없음)에서는 러시아 5.3%, 미국 3.2% 한국 2.7%, 중국 1.9%, 일본 1.0%순이며, 미국 국방부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의 구매력평가 기준(PPP)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율은 북한 23.3%, 미국 4.3%, 러시아 3.8%, 한국 2.6%, 중국 2.0%, 일본 1.0%의 순서로 나타난다.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안보딜레마의 시각에서 보면, 각국의 국방비 증액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해당되는 모순을 갖게 됨으로 논의에서 배제한다.

냉전구조에서는 적대적 상대의 국력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성장은 안보위협과 직결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렇다고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 문제의 해결, 경제적 상호의존, 위안부 문제 등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전략이 담고 있는 의도가 될 것이다.

### 3.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

세계적으로 군사력의 확장이 평화를 가져오는지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지도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무기가 그들의 핵심이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 논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강군몽 실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시진핑 주석은<sup>25)</sup> 미래의 중국 역시 강력한 힘을 추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확장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더 강한 군대를 건설하려는 군사전략 구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 曾伟, 张琪昭, “‘两会内外习近平’之六: 三大关键词发出强军最强音,”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313/c1001-29141785.html> (검색일: 2017-03-17).

## 가. 적극방어(积极防御) 전략

중국은 전통적으로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고수하였다. ‘적극방어’란 전략적 수준에서는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지만,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는 공격을 수행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충분한 준비(充分准备), 후발제인(后发制人)<sup>26)</sup>, 공방결합(攻防结合), 지구전(持久战)’ 등의 작전개념을 담고 있다.<sup>27)</sup>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념을 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핵심 개념은 유지되어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1920년대부터 현재 시진핑 정권의 ‘신형세하 적극방어’전략까지 약 90여 년간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계승되고 있다.

‘적극방어’ 전략의 수립은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에 기인하는데,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결국 군사전략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 국공내전, 항일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중국 공산당은 열세한 전력으로 강력한 적과 싸워야 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병력과 무기 면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적을 상대로, 일반적인 정규전 방식으로 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생존을 위한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고민은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인민들을 활용하는 ‘인민전쟁사상’을 탄생시켰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인민전쟁사상’에 기초한 ‘인민전쟁전략’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작전개념에서는 지역 확보보다 야군의 전투력을 집중해 강력한 일격으로 적의 유생역량(有生力量) 격멸에 중심을 둔 ‘섬멸전(歼灭战)’을 강조하고, 작전형식

26) 《순자(荀子)》에서 유래된 성어로 “적을 상대할 때, 선불리 행동하지 않고 우열을 살펴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강력한 일격으로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

27)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41-145.

측면에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전(运动战), 진지전(阵地战), 유격전(游击战)’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이들이 결합된 형태인 ‘전략방어(战略防御), 전략대치(战略相持), 전략반격(战略反攻)’으로 단계화되는 전략적 수준의 ‘지구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적극방어’ 전략은 이러한 군사적 고민들을 거쳐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sup>28)</sup>

<표 1> 마오쩌둥 인민전쟁전략의 작전형식과 작전개념

작전형식	작 전 개 념
운동전 (运动战)	적이 강하고 아군은 약한 형세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승리할 수 없으면 퇴각한다.
진지전 (阵地战)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반격을 준비하며 아군에게 유리한 시기를 택하여 반격을 실시한다.
유격전 (游击战)	적이 전진하면 아군은 퇴각한다, 적이 피로하면 아군은 공격한다. 적이 주둔하면 아군은 교란한다, 적이 퇴각하면 아군은 추격한다.
모든 작전형식은 기본적으로 섬멸전 적용	

\* 출처: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53-167을 재구성

특징적인 것은 적극방어 전략이 단지 방어에서 종결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반격과 공격을 준비하는 또 다른 공격을 의미(攻防結合)한다는 점이다. ‘아군의 형세가 불리하면 결전을 회피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며, 아군에게 유리한 시기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한다(防反結合)’는 마오쩌둥의 생각은 일련의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들이 결코, ‘방어’로 종결되지 않음을 암시한다.<sup>29)</sup>

28)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01), pp.141-145.

29)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国

적극방어 전략의 보다 의미 있는 움직임은 중국의 국력과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적극방어 전략은 국내 영토방어와 생존을 위한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진화한 ‘적극방어’는 이미 그러한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진화는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신장된 국력이 말해주듯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고, 게다가 유리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인식 하에 ‘전략방어’로부터 ‘전략대치’와 ‘전략반격’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 전략적 수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축소하자 이를 겨냥해 일대일로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대응 등의 변화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신형세하 적극방어’ 전략의 ‘신형세’는 소극적 의미에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격이 유리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그들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공세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군사변혁 방향을 설정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분쟁의 종결은 내가 얼마나 피를 흘리든 상관없이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있을 수 없음을 ‘적극방어’는 말해준다. 강한 상대와 대결하여 승리했던 중국의 역사적 경험들은 이제 그들의 국방백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중국은 지금 전략적 수준의 지구전(持久战)을 수행 중이며, 전구상의 쾌속반격(快速反击)을 준비 중이다. 비록 전통적으로 ‘선발제인(先发制人)<sup>30)</sup>’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적극방어를

军队, vol. 5, no. 41(2016), pp.14-15.

30) 《사기》의 〈항우본기〉에서 유래된 성어로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의미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적극방어’ 전략의 ‘후발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견지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방어’는 중국이 처한 외부요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적극’은 무력충돌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信息化局部战争联合作战) 전략<sup>31)</sup>

오늘날 군사 전략가들은 과거에 없었던 세 가지의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군사기술혁신으로, 전례 없이 정밀하고 치명적인 무기체계의 개발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쟁, 사이버 위협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전지구적 수준의 테러로 국가와 전후방의 경계가 없는 전방위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만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추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

---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제전쟁(preemptive warfare)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fare)을 비난하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후발제인이 공식 입장이다. 肖刚, 何广华, “强制外交: 西方国家军事外交的核心内涵—兼论中国军事外交不同于西方强制外交的哲学基础,” 《国际论坛》, vol. 6(2009), p.2.

- 31) 중국인민해방군의 ‘연합(联合: joint)’ 개념은 우리군의 ‘연합(combine)’과 ‘합동(joint)’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의 ‘연합’ 역시 동일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국군과의 ‘연합’ 훈련, 타군종과의 ‘합동’ 훈련의 개념을 포함하며, 합동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군사용어 사전과 인민해방군 종교(중령)에 의하면 독립 군종 내에서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며(육군 합동훈련, 해군 합동훈련) 전구차원에서는 연합훈련(중령 연합훈련, 동부전구 연합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본문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중국 군사용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의미 전달상 필요에 따라 ‘연합합동’으로 설명하였다. 马平, 《联合作战研究》(北京: 国防大学出版社, 2013)에서 용어 참고.

체계의 발전과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전략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중국 역시 이를 인식하고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연합합동 작전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전략(信息化条件下局部作战)’에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信息化局部战争联合作战)’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sup>32)</sup>

첫째, 정보화(信息化)추진이다. 중국은 90년대부터 ‘국방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무기와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흐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신형세하 강군육성의 목표에 따라 양을 중요시하는 수량규모형(数量规模性)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질량효능형(质量效能型)으로, 인력밀집형(人力密集型)에서 과학기술밀집형(科技密集型)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는 이를 실행할 지휘통제체계의 개선과 이를 운용할 정보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군 구조와 편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과 군사학교에 관련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sup>33)</sup>

둘째, 국지전(局部战)을 추구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군사외교적 수준에서 전략적 방어를 진행하되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경우, 자위적 차원의 신속한 반격(自卫快速反击)으로 작전범위의 확장과 전쟁으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작전과 국경지역에서의 ‘변

32) 王利勇, “如何使联合作战指挥真正起到龙头作用,” 中国军队, vol. 3, no. 39 (2016), p.42.

33)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扎实推进军队规模结构和力量编成改革,” 中国军队, vol. 6, no. 42(2016), pp.48-49.

경지구 연합반격작전(边境地区联合反击作战)<sup>34)</sup>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들과 연계된 ‘역외 투사능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합합동작전(联合作战)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이라는 전장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강력한 일격으로 단기간에 분쟁 혹은 무력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합동성 강화 외에 특이할 만한 점은 민간요소의 통합인데, ‘군민융합’, ‘평전일체(平战一体)<sup>35)</sup>’의 개념에 따라 평시부터 군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중이다.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 민간전문가 활용 및 인재양성, 군민 공동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이를 위한 법제개편 등이 포함된다.<sup>36)</sup>

#### 다. 대외확장 전략

중국군의 ‘대외확장’ 전략은 국가수준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다.<sup>37)</sup> 비록 이러한 전략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34) 변경지구 연합반격작전(边境地区联合反击作战, Joint operations of counterattack along border area)이란 중국 국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영토 침범 등에 대응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연합합동작전을 말한다.

35) 전·평시 구분이 없는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현대전에서는 전시의 ‘군’과 평시의 ‘민’의 구분이 없음을 강조하여 ‘군민융합발전 전략’의 근간이 되며, 합동작전의 범주에 ‘민’까지 포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6)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习主席为何如此重视联合作战指挥体系?,” *中国军队*, vol. 3, no. 39(2016), pp.36-43. 石佳坤, “关于边防信息化体系建设的几点思考,” *国防*, 第2期(2016), pp.69-70.

37)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을 군사적 확장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구분하여 이해해야한다. 일대일로 전략은 대외경제협력 정책으로 군사적 확장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군사전략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대외확장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군사적 팽창이 국외로 전개되는 최근의 양상을 볼 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중국 국가이익의 확대로 인해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이익 보호도 ‘강군몽’ 전략에 포함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일대일로’ 전략으로 확장된 경제이익은 군사력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국가 핵심이익으로 간주된다.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의 ‘대외확장’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는 국외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군사 영향력 강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역외 투사능력을 강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국제적 군사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사례로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의 군사기지 구축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들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전개 중인 2,400여명 규모의 UN평화유지 임무와 더불어 '15년 11월, 동부 아프리카의 지부티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다. 중국은 아덴만에서의 해적소탕임무와 UN평화유지군을 위한 기지라고 설명했지만 추가적으로 군함과 헬기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해군육전대(海軍陸戰隊: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의 영구주둔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sup>38)</sup> 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다국적 연합훈련들<표 2>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확장된 국제적 범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38)中国网, “俄媒: 中国‘吉布提’海外军事基地年内启用,” <http://military.china.com/important/11132797/20170311/30318798.html>(검색일:2017-03-24),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吉布提被冠为“军事基地,” 外媒在唱哪出戏,” [http://www.mod.gov.cn/jmsd/2016-10/25/content\\_4752414.htm](http://www.mod.gov.cn/jmsd/2016-10/25/content_4752414.htm)(검색일:2017-03-24).

〈표 2〉 중국의 2016년 연합훈련 현황

시기	내 용	시기	내 용
1월	· 중국-방글라데시 해상연합훈련	9월	· 중러 해상 연합훈련 · 다국적 대테러 연합훈련(중, 미, 일 등) · 국제 대테러훈련 · 중국-아세안 인도주의구조훈련
2월	· 인도 국제해상열함식(閱艦式) 참가 · 중국-EU 해적퇴치 연합훈련		
3월	· 중국-영국 연합구조 모의훈련	10월	· 중국-사우디 특전사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독일 연합구조훈련 · 중국-파키스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타지키스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4월	· 중국-파키스탄 공군연합훈련 · 인도네시아 인도주의구조훈련		
5월	· 아세안 안전 및 해상대테러 훈련 · 중국-러시아 항공우주 연합훈련	11월	· 중국-아세안 해상안전 연합훈련 · 중국-인도 육군 대테러 연합훈련 · 중국-파키스탄 해군 연합훈련 · 중국-미국 인도주의구조 연합훈련 · 중국-말레이시아 연합훈련 · SCO(상하이협력기구) 산악보병 연합훈련
6월	· 중국-태국 해병대 연합훈련 · 2016 RIMPAC 참가		
8월	· 중국-미국-호주 육군연합훈련		
		12월	· 중국-감보디아 인도주의구조 연합훈련

\* 출처: 新華社解放軍分社 《中國軍隊》雜誌社, “中外聯演聯訓回顧,” 中國軍隊, vol. 1, no. 43(2017), pp.38-45를 참고하여 작성

대외확장 전략의 또 다른 사례는 ‘역외 투사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관련 법 제정이 눈에 들어온다. 중국은 '16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sup>39)</sup>』을 통과

39)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2016), 第3章 安全防範.

시켰는데 법 제정 의도가 국제적 테러 척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국내내부 단속과 동시에 국제적 군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군민융합발전 전략에 기초한 군 차원의 노력을 들 수 있다. '16년 1월, 중국해군육전대(海军陆战队, 해병대)를 주체로 실시했던 '역외 실전화훈련(跨区实战化演练: regional live-fire drill)'<sup>40)</sup>이 그 첫 사례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상륙훈련, 대테러작전, 해외원정작전 등의 과제로 약 6,000km를 기동하며 진행되었으며 중국 해병대 역사상 최장거리 항공수송, 최장 작전 시간, 최장거리 역외작전을 달성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 남해함대 치우타오 군교처 처장(南海舰队后勤部军事交通运输处处长丘涛)이 평가한 것처럼 “해군 편제능력, 후근부의 후방지원, 그리고 민간운송능력이 결합된 실제 훈련”이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민간 자산을 ‘실전적’으로 활용했다. 평시 훈련을 위해서 군 병력과 특수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민간 대형항공기, 민용 선박, 열차의 구조와 좌석을 증후적으로 개조했고 군 작전을 위한 항로, 수로, 철도의 임시노선 변경을 허용했다.<sup>41)</sup>

이렇듯, 중국인민해방군의 대외확장 전략은 국가차원의 일대일로 전략과 군민융합발전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국의 확대된 이익 보호를 근거로 삼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장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역외투사능력이 과연 아프리카, 중동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40) 廖志勇, “战域作战: 2016年第一场不一样的军演,” 中国军队. vol. 2, no. 38 (2016), p.21.

41) *Ibid.*, p.19.

동시에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역외투사능력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개연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역사적 사명’을 ‘주입’한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몽은, 강군몽을 통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국의 목표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전략적 방어자세를 고수하지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비한 강력한 준비를 하고, 군사변혁을 추구하지만 국력의 한계를 고려한 국지적 연합 작전을 강조하며,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대외 확장을 추구한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중국 위협론’이다. 고려해야 할 점은 이들을 단지 ‘위협’으로 간주하는 확대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폭발적인 군사력 증강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강대국으로의 회귀<sup>42)</sup>’를 위한 군사전략 그 자체가 위협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의 군사전략에서 표출되는- 공세적 행동, 연합훈련 등의 일련의 군사적 활동들을 북한 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이 전개하고 있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포함외교(gunboat diplomacy)<sup>43)</sup>와 동일한 맥락으로 인식하고 있다.<sup>44)</sup>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

42)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p.546.

43) ‘강압외교’란 적대국가의 외교정책 혹은 국내정책을 변경하게끔 설득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제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포함외교’는 적을 겁먹게 하기 위해 군사력으로 시위하는 행위로, 역사적으로 해군력이 사용되었다.

44) 한국의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분야에 대한 주요 사실들은 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방비의 총액, 중러연합훈련, 항모 및 신무기 개발 등을 다룬다. 비록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 지라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미중·중영·중EU 연합훈련, 인도주의구조·해적퇴치 연합훈련, UN평화유지활동 등의 사

훈련은 중국을 위협하는 행동인가? 혹은 중국몽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쌍방 모두 ‘거울 이미지 (mirror image)<sup>45)</sup>’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강군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군사전략이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으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변화하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단순하고 경악스러운 반응을 지양하게 하고 그들의 의도를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4.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시작

강군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특색 군사변혁’으로 나타난다. ‘중국특색’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근의 국방개혁은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국방과 군사현대화건설의 삼보주(三步走)전략구상’ <표 3>을 19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타 전략과 발전계획처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구상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

---

레들을 제외한 ‘선별적’ 인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인민해방군 장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한국의 일반대중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현실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군사외교적 신뢰가 보다 필요해 보인다.

45) 서로 믿지 못하는 행위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행위만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의 행위는 악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인식은 각자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한 행동들은 다시 상대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Charles W. Kegley, Shannin L. Blanton, 『세계정치론 : 경향과 변환』, 조한승, 황기식, 오영달 역 (서울 : 한티미디어, 2014), p.117.

고 유지되었는데, 이번 시진핑 체제의 군사개혁은 ‘삼보주’ 전략 구상을 유지한 가운데에서도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었던 해방군의 제도와 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주목을 받고 있다. ’16년에 제시된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sup>46)</sup>』은 지휘체제 개선, 연합합동작전체제 강화, 군 조직 및 편제 개편 등의 파격적인 추진사항을 담았으며 그 핵심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이다.<표 4>

<표 3> 국방과 군대 현대화건설 “삼보주” 전략구상

단 계	주 요 내 용
1단계(~2010년)	전력정예화, 구조조정 등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기반 마련
2단계(~2020년)	기계화, 정보화 분야의 발전 달성
3단계(~2050년)	국방과 군대 현대화 달성(정보화 군대, 정보화 전쟁수행)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国防》(2006), 第2章 国防政策을 재구성

<표 4>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변혁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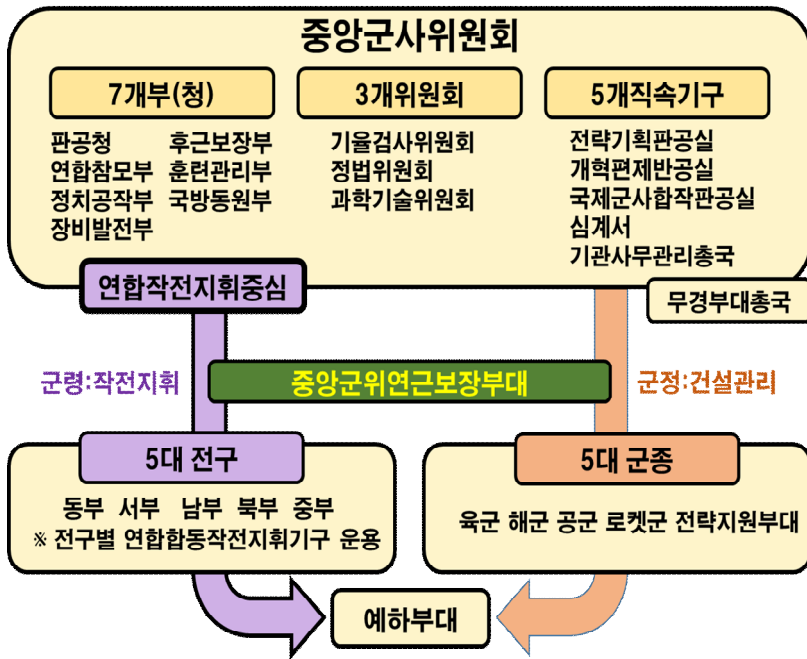
주 요 사 항	추 진 내 용	
군위관총 (军委管总)	· 중앙군사위원회 권한강화 · 연합, 합동작전체제 강화	· 연합작전지휘센터(联合作战指挥中心)설립 · 중앙군위연합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联勤部队)창설
전구주전 (战区主战)	· 5대 전구체제 정립 · 독립작전수행	· 동, 서, 남, 북, 중부 전구창설 ·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战区联合作战指挥机构)
군종주건 (军种主建)	· 5대 군종체제 확립 · 군종별 관리시행	· 육군지휘기구 창설 ·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창설

\* 출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발표자료와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을 참고하여 작성.

46)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 《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2016) 第2章 改革的总体目标和主要任务.

가. 군위관총(军委管总)

‘군위관총’은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기본 바탕으로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군을 총괄하여 작전을 지휘하고 군사력 건설을 관리’하는 의미이며, 국가 지도층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2> 다시 말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용병(用兵)은 전구(战区)가, 양병(养兵)은 군종(军种)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설정하고, 지휘부의 권력 강화, 연합합동작전 지휘체계 확립, 작전지속능력 보장에 중점을 두고 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하였다.



<그림 2> 군사변혁 이후 중국인민해방군 군구조

※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關於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을 참고하여 도식

첫 번째로 지도층의 지휘권과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기존 총부 체제(总部体制)를 다부제(多部制)로 조정하여<sup>47)</sup>, 권력의 집약체였던 4대 총부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각 총부의 권한과 기능을 중앙군사위원회내 15개 기능 부서에 분담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능부서들은 전문성 제고·효율성 향상·상호협조·견제 및 감독 등의 참모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첩으로 통제했던 무경부대총국의 지휘권을 완전하게 중앙군사위원회가 갖게 되었다. 기존 4대 총부의 병폐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을 겸하고 있는 현중국 정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직접 투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구축했다. ‘신형세하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新形勢下, 能打仗, 打胜仗)’ 강군 육성을 기치로 걸고,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개혁방향으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체제 개혁을 강조하였는데<sup>48)</sup>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연합작전 지휘센터(中央军委联合作战指挥中心<sup>49)</sup>)의 체계를 개선하고 전구를 지휘하는 전구 연합작전 지휘기구(战区联合作战指挥机构)를 신설함으로써 강력한 중앙통제를 바탕으로 전구 연합합동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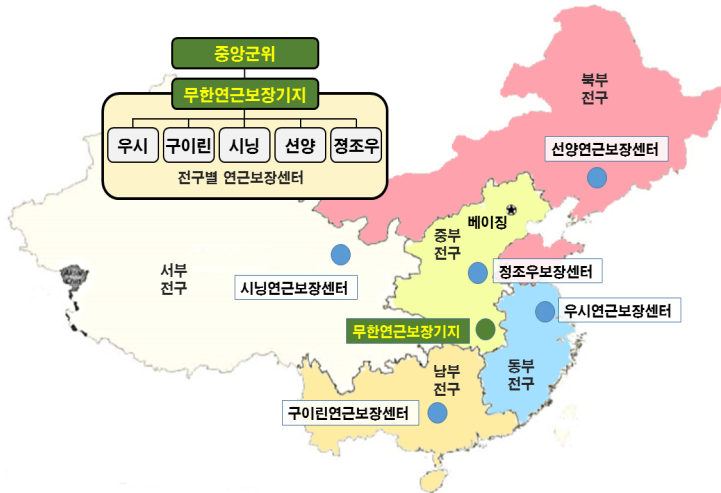
끝으로, 연합합동 작전지속지원능력 보장에 대한 개혁을 단행

47) 총부체제는 기존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중심의 중앙군사위원회를 말하며, 다부제는 4대 총부를 해체하여 이들의 권한과 기능을 여러 참모부서에 전담하여 조직한 체제를 의미한다.

48) 中国共产党新闻网, “习近平: 加快构建具有我军特色的联合作战指挥体系,” <http://cpc.people.com.cn/n1/2016/0421/c64094-28292297.html> (검색일: 2016-09-10).

49) 연합합동작전지휘센터는 2013년, “행동사명-2013(行动使命-2013)” 훈련부터 운영되었는데, '16년, 중국의 국방개혁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하였다. '16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 연합 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联勤保障部队: 중앙군위연근보장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작전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지원체계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무한연근보장기지(武汉联勤保障基地)를 중심으로 우시, 구이린, 시닝, 선양, 정조우(无锡, 桂林, 西宁, 沈阳, 郑州)의 5개 지역에 연근보장센터를 설치하여 중앙과 전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합합동작전 지원체계<그림 4>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sup>50)</sup> 이는 기존 총후근부와 7대 군구 산하의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던 군수·병참기능들을 통폐합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관할함으로써 연합합동작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림 3> 중앙군사위원회 연합 군수지원부대(中央军委联勤保障部队)

\* 출처: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国军队》, vol. 5, no.41 (2016), p.15를 참고하여 도식.

50)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国军队》, vol. 5, no. 41(2016), p.15.

군위관총의 핵심은 국가전략 수준에서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구상을 달성하고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4개전면’ 전략구상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의 조정을 통해 -전면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집권적인 지휘가 -전면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 가능한 체제로 개편했으며, 군사전략 수준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강력한 통제 아래 군령과 군정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전략수행의 ‘전구주전’과 전투력 건설의 ‘군중주건’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구축했다.

#### 나. 전구주전(战区主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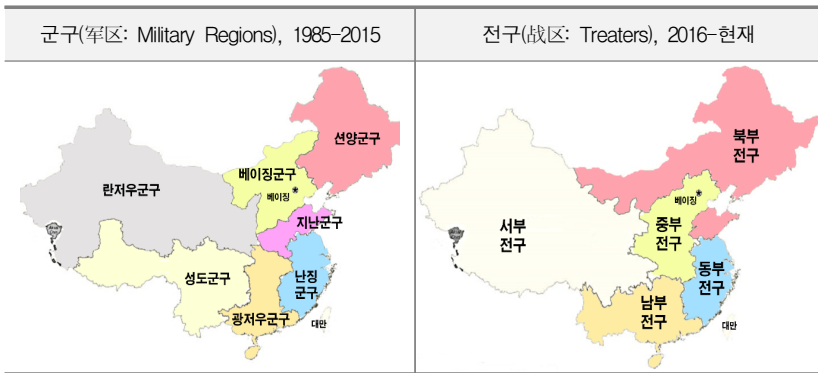
’16년 2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구창설식을 통해 기존 7개 대군구(大军区)에서 동·서·남·북·중부 지역을 관장하는 5대 전구(战区)로의 개편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는 전구와 군종간 권한과 책임을 혁신적으로 조정하여 평전일체(平战一体)체제<sup>51)</sup>를 구축하고, 전구 주도의 연합작전을 통해 그들의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전·평시 작전수행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존 군구체제의 합동 작전능력 발휘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4대 총부에서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순적으로 동시에 해·공군 본부에서도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군구(军区)는 전략수립과 작전수행에 대한 책임만 있고, 부대 지휘권

51) 평전일체(平战一体)체제 : 기존 대군구에서는 작전지휘권이 사실상 각 군종에 있었기 때문에 군구자체로서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전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전·평시 전구 주도의 독립적인 연합합동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없는 비대하기만한 조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을 통해 군종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조정된 전구에 이양함에 따라 전·평시 각 전구가 할당된 합동전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효율성 있는 전투력 투사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음으로, 전구는 ‘적극방어’,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기존 7대 군구의 특징이 ‘일정한 근거지(진지)를 두고 육군 중심의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었다면, 새로 개편된 5대 전구는 지역과 군종을 초월하여 -각 전구의 주요 작전지역은 고정된 책임지역이 아님을 고려해야한다.- 연합합동작전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전·평시 공히 전구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연합작전 지휘센터의 지휘를 받는데, 각 전구마다 전구 연합작전 지휘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전구 주도의 연합합동작전, 변경지구연합(합동의 의미) 반격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역외 투사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 중국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sup>52)</sup>

5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전구주전은 적극방어 전략의 ‘적극’, 즉 무력충돌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투영한다. 다시 말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집중해 강력한 일격으로 적의 유생역량(有生力量) 격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동전력을 즉각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 내외부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무력충돌이 국가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여러 국가들과의 국경선 분쟁, 대만문제, 북한 급변사태, 일본·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고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에 의한 분쟁 및 테러의 위협을 대비한 선별적인 개입과 대응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 다. 군종주건(军种主建)

’15년 12월 31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육군지도기구·전략지원부대 신설 그리고 로켓군의 재편을 통해 50여년 만에 기존의 4개 군종에서 5개 군종으로의 조정을 마치고 군사변혁의 기초공사를 마무리 했다. 이러한 군종 체제정립은 합동작전과 미래전을 대비할 수 있는 군대양성과 그들의 전략수행에 적합한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먼저, 군종간 경쟁을 해소하고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질적으로 기존 4총부의 지휘를 받았던 비대한 육군을 4총부 해체와 동시에 육군지도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해·공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위를 약화시키고, 군 전체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5대 군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sup>53)</sup> 이는 군종간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군종 고유의

CONGRESS (2016), p.2를 참조하여 도식.

53) 胡光正, “伟大改革的精髓——论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国防, 第3期(2016), p.9.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종개편<sup>54)</sup>

구분	주요 작전지역	육군 (집단군)	해군		공군	비고	
			함대	해병대			
중부 전구	수도방어, 전략예비	20, 27, 38, 54, 65	.	.	전구별 지휘		
동부 전구	대만, 다오위다오	1, 12, 31	동해 함대	2개 여단			전체해군 전력의 1/2 배치
서부 전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13, 21, 47	.	.			
남부 전구	남중국해	14, 41, 42	남해 함대	4개 여단			전구사령관: 해군중장 임명
북부 전구	한반도	16, 29, 40, 26	북해 함대	1개 여단			

※ 해군육전대((海軍陆战队: 해병대)는 2019년 추진계획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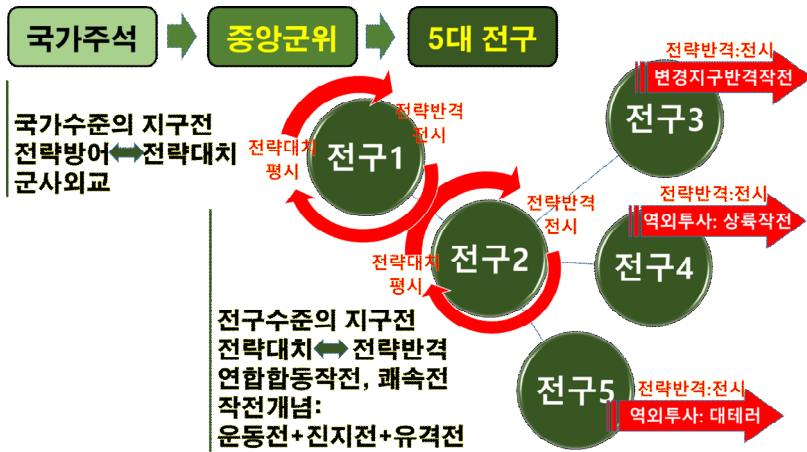
다음으로 로켓군(火箭軍)을 개편하고 전략지원부대(战略支援部队)를 신설했다. 로켓군은 기존 제2포병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편한 군종으로 전략 및 재래식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대미 핵 무기 경쟁과 주변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략지원부대는 신설 군종으로서 기존 총참모부의 3부와 4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인수하여 창설되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뒤처지는 전략적 수준의 작전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며, 정보, 기술정찰,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의 5대 영역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sup>55)</sup>

끝으로, 군종체제를 조정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

5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6)을 참조하여 작성.

55)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深化国防和军队改革这一年,” *中国军队*, vol. 6, no. 42 (2016), pp.61-62.

행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군전력 증강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전인대 외사위원회부주임 류사오장(前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이 “해군전력의 강화는 필연적이며 그것이 항모든 병력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민해방군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sup>56)</sup>라고 밝힌 것처럼 인민해방군의 개혁은 해군전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림 5〉 중국의 군사변혁과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 출처: 본 연구 제3장과 제4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

중국은 '19년까지 전체 병력의 30만 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육군은 18개 군단, 115만 명에서 12~13개 군단, 91만 명으로 줄일 것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해군(해군육전대 포함)은 23만 여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방어’ 전략의 핵심전력인 해군육전대의 확장 계획이 두드러진다.

56) 网易军事, “原海军政委刘晓江上将: 海军编制人员将扩大,” <http://news.163.com/17/0306/11/CERDTBHB000181KT.html> (검색일: 2017-03-14).

현재의 2개 여단, 2만 명에서 5~6개 여단을 증강한 총 7~8개 여단, 10만 명 수준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해군육전대 지휘기구 창설의 움직임도 예측된다.<sup>57)</sup>

군중주건은 군사전략을 실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을 의미한다. 적극방어전략의 ‘적극’이 전구주전이라면, ‘방어<sup>58)</sup>’는 군중주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준비하며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을 이행할 전력을 양성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 군사전략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군사전략은 그들만의 군사변혁을 통해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sup>59)</sup><그림 5>’의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전력의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전투력 투사가 가능한 군 구조와 군종자체를 과감하게 개혁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군사변혁은 중국 군사전략과 상호작용을 하며 그들의 핵심이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별적 관여로 표출될 것이다.

먼저, ‘적극방어’ 전략을 구현한다. 즉, ‘형세가 불리하면 회피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며, 유리한 시기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5대 전구는 군사변혁을 통해 전투력 투사의 주체

57) 新浪军事, “中国海军陆战队将如何进行扩编 或由2个旅增至7个旅,” <http://mil.news.sina.com.cn/jssd/2017-03-14/doc-ifychhus1189926.shtml?cre=milpagepc&mod=f&loc=3&r=9&doct=0&rfunc=81> (검색일: 2017-03-20).

58) ‘적극방어’ 전략의 ‘방어’는 방어에서 종결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반격과 공격을 준비하는 공격의 연속적인 과정이다(攻防結合).

59) 강대국이 개입주의적인 ‘글로벌 경찰’ 역할과 무관심적인 고립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중요한 특정 상황이나 국가 혹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힘을 사용하는 강대국 전략, Charles W. Kegley, Shannin L. Blanton,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환』, 조한승, 황기식, 오영달 역 (서울: 한티미디어, 2014), p.125.

로서 독립적인 합동전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의 ‘전략방어’를 고수한 가운데, 각 전구는 평전일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우발적인 위협을 상정한 ‘전략대치’와 ‘전략반격’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비록 중국은 또 다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이익에 관련해서는 각개격파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수렴한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내 이익에 집중하되 국제적 수준의 개입으로 표출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가적 수준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지전’을 표방한다. 이는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준비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국력소모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지전’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장된 이익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외교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력 양성차원에서도 감지되는데, 육군의 대대적인 축소와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전력의 강화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전구와 군종은 군사전략이 투영된 ‘선별적 관여’의 주체로서 단기적 측면에서 전구의 연합합동 작전능력은 역내 분쟁에 집중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종의 체질개선-특히, 해병대-은 역외 투사능력 강화에 주목할 것이다.

중국특색 군사변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군사전략과 연계된 변혁의 최근의 경향들은 이들이 앞으로 선별적 관여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관여’는 중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과 국제적 쟁점들을 고려하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강력한 통치기반과 지휘체계를 확립했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내외적인 잠재적 분쟁에 투입할 전

력의 구조적 설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어’적 범위 내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을 구현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5. 맺음말

최근 중국 민중에서는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으켰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강하게 했으며,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게 한다(毛泽东让中国站起来, 邓小平让中国富起来, 习近平让中国强起来)’는 말이 유행이다. 이는 중국몽의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꿈은 시진핑의 ‘4대전면’ 전략구상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로서 적어도 지금은 강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강대국으로의 회귀는 당연한 순리이며, 이러한 순리를 이어가기 위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논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위협인가, 중국몽, 강국몽은 어떻게 군사변혁으로 투영되고 있는가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적 수준에서 확대된 국가이익 보호, 새로운 국제정세를 고려한 군사적 대비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중국몽, 강국몽 실현을 위한 부국강병의 ‘부’는 일정부분 달성했음을 인정하고, 다음 수준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강병의 책략, 즉 강국몽이 요구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적극방어’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의 공세적 구현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적 수준에서도 강한 중국에 대한 열망은 다를 바가 없다. ‘군민융합발전’ 전

략이 대변하듯,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은 필수적인 선택이다.

첫 번째 논쟁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위협이 되는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변혁은 위협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그들의 전략에서는 마땅히 위협으로 간주해야 할 타당한 이유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중국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역내 지정학적·역사적 원인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중국이 상상하는 중국몽과 강군몽은 단순한 양의 확장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에게 이들은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요컨대, 중국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의 ‘부흥’은 새로운 패권의 추구가 아니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서 정상적인 위치의 회복을 말하며,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 위협요소의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그에 맞는 변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아니다. 위협의 가능성은 중국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의 ‘인식’에 달려있다. 군사력 팽창에만 초점을 둔 ‘위협론’이나 혹은, 극단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근거한-’을 경계해야 한다. 적대적 관점에서의 관찰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위협’으로 간주된 상대의 행동은 적대적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며, 설사 그들의 우호적인 행동을 접한다하더라도 의구심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낙관론’은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상황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중국

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화를 상호연관 지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두 번째 논의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이 되는데, 중국의 국가·군사전략이 어떻게 군사변혁으로 투영되는가이다. 중국의 군사변혁은 ‘선별적 관여’의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전략을 고려하고 군사변혁의 발전양상을 주목해 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략적 환경과 쟁점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달리하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는 그들의 전략을 수행하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을 끌어들이 수 있는 강력하고 충분한 동기로 보이는 북중관계 갈등·북핵 위협·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최근 들어 보다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중국 국경지역 일대의 ‘변경지구 연합반격작전’과 군사변혁이 잉태한 ‘선별적 관여’의 조합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대만문제, 역내 영해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있는 일대일로와 연계된 대외확장 전략을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단순 분석 혹은 그것이 초래할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을 지양하고 그들의 전략과 중국특색 군사변혁을 연결하는 시각을 도출해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명쾌하게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의는 중국의 국방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역내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한중의 이해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중군사관계의 갈등과 협력을 형성해왔던 현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중군사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치는 영향과 역내 분쟁관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그 순서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별적 관여’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군 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이제 2년이 채 안되었고 실제 개입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관찰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사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비단, 적으로 확정된 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전이승’의 이면에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새로운 적을 만들지 않는 전략적 지혜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절대적인 상수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군사적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군사외교적 수준의 준비 또한 병행해야함이 마땅하다. 때문에, 중국의 위협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전략과 군사변혁의 연계한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사실 위협판단이라는 사고 자체도 옳지 않다. 발전양상을 관찰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들의 전략과 그 의도가 표출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관점과, 이미 그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관점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국방개혁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예측하느냐에 달려있다.

[원고투고일: 2017.4.2, 심사수정일: 2017.5.11,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중국위협론, 군사전략, 중국특색 군사변혁, 역외 투사력, 선별적 관여

<ABSTRACT>

##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he Chinese's military reform of national defense in the Era of Xi Jinping

Shim, Hyun-Seop

“Peaceful rise” is an idea the Chinese have emphasized repeatedly. However, the pace and nature of its military rise, coupled with its strong economic growth has contradicted this idea and inevitably caused alarm. In recent history, the Chinese have illustrated unpredictable intentions which leads us to question if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will pose a threat to the world? The aim of the article is as follows: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a new perspective to this debate by understanding the unpredictability in the design of it's military field. Whil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shocking and radical its unbridled military expansion is, the bigger issue of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based on the Chinese Dream" needs to be studied in detail.

Fundamentally, This paper analyze the provided materials from Chinese communist party, national R&D institutes, and supported with opinions from People's Liberation Army(PLA) officers.

This article provides a stepping stone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with an emphasis on system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PLA. In conclusion, China's military rise is not a simple issue on quality-driven expansion.

Keywords : China threat theory, military strateg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Chinese characteristic, extraterritorial projection power, selective engagement